

# 한우 자조금



특집

농가 고생산비 그늘 언제쯤 벗어날까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한우자조금 2만원 유지 결정

유통감시원 교육 열기 높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농가의 관심과 참여 필요”

04

2009 • April

## 국제곡물가 · 환율움직임 따른 배합사료값 전망

# 농가 고생산비 그늘 언제쯤 벗어날까

한우농가가 높아진 사료가격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많은 농가들이 언제쯤 사료가격이 안정될 것인지에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료가격의 상승요인은 국제곡물가 폭등에 기인했지만 이후 환율과 유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곡물가와 환율 등의 움직임을 통해 향후 배합사료가격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

### □ 사료원료곡물 최근 동향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작된 국제 곡물가격 폭등세가 지난해 3/4분기까지 지속됐으나, 9월 이후 가격하락세로 전환, 연말까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 초 각국의 경기부양 대책이 발표되면서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어 다시 가격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 사료원료가격의 변동

#### • 하락요인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비롯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곡물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농산물은 물론 철광석, 원유 등의 수요를 감소시켰다.

아울러 유가하락은 옥수수(바이오에탄올), 대두(바이오디젤)를 원료로 하는 대체에너지의 경제성을 낮춰 결과적으로 곡물수요가 감소해 가격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 • 재상승요인

글로벌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기회복에 발 벗고 나섬에 따라 곡물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 또한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곡물가 상승에 일조하

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원료곡물가격은 물론 해상 운임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이다.

〈표〉 주요원료의 국제시세 동향

(단위 : US\$/MT)

	2008				2009			
	1	6	9	12	1	2	3	4
옥수수	316	424	331	215	210	202	207	215
대두박	494	589	482	375	400	396	389	410
소맥피	233	271	275	260	180	149	142	155
타피오카	226	243	263	239	-	128	120	120

※ 2009년 3월까지의 월평균가격, 4월은 4월9일 현재 기준가격임.(한국사료협회제공)

### □ 환율변동

환율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구입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환율은 (08.6)1,019원 → (08.11)1,390원 → (08.12)1,374원 → (09.2)1,429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차츰 안정세를 보여 4월9일 현재 1,329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는 환율의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곡물시세를 참고할 때 현 상황에서 원료가격만을 놓고 보면 안정적인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료업체의 원료곡물의 구입이 보통 3~5개월 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전망 또한 낙관적이다. 현재 민간사료는 5월 가격인하를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안정한 환율에 이 또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사료값 절감사례 농가에게 듣는다

경북 예천 | 박용제 대표\_ 전국한우협회 예천군지부 생균제 사업장

### “자체 원균배양 증식으로 경제성 높은 생균제 공급”



“예천은 한우농가수가 전국에서 최고이며 두수로도 세번째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소규모 농장이 많은 의미”라고 말을 연 박용제 예천참우 생균제사업장 작목반장은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이면서 '새벽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우인이다.

이 지역 123명의 한우인이 뜻을 모쳐 2005년 11월 공동투자형태로 설립한 이 사업장은 현재 240여 한우농가, 8,000여두의 한우에게 급여되는 사료에 첨가하기 위한 생균제를 생산하고 있다. “생균제를 시중 가격 대비 10~15% 수준의 생산원가로 판매합니다. 원균구입 후 원균배양시설을 통해 증식시킴으로서 더욱 싼 가격에 공급 할 수 있습니다.”라는 박용제 반장은 “일일 100g 수준으로 사료와 함께 섞어 먹이게 되면 사료효율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20%정도의 사료비 절감효과와 함께 고품질의 한우생산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이 사업장을 통해 배합사료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여 시중가 대비 약 20% 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 매월 소요되는 120톤 규모의 사료를 중간마진없이 사료회사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09년 8~9월을 목표로 일생산 8톤 생산규모의 자체 TMR사료공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현 사업장 뒤쪽에 공장부지 매입을 완료해 놓고 상반기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TMR사료는 20kg 한포당 5,500원에 공급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자신감만큼이나 신사업부문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 | 김두경 지부장\_ 울산한우회 영농조합 TMR사료공장

### “고품질 TMR, 농가 고급육 생산·번식률 향상에 큰 힘”



경남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000여평의 부지위에 하루 20톤 생산규모의 설비 2대를 갖추고 울산지역 1백여 한우협회 회원 농가에게 고품질의 TMR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울산한우회영농조합 TMR사료공장.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부 김두경 지부장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배합사료가격의 대항마로서 가동 시작 2개월여에 불과한 이 TMR 사료공장의 입지를 다지게 한 장본인이다.

김두경 지부장은 “울주군의 지원을 토대로 지난 2월 오랜 숙원이던 TMR 사료공장이 완공될 당시 지역 한우농가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며 “광물질 및 면역증강 첨가제를 투입하고도 기존 제품의 구매단가 대비 최소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생후 6개월 ~ 20개월령까지의 육성우 및 번식우 겸용 TMR 사료로서 소화기능 촉진을 통한 고급육 생산 및 가임율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설명. 김지부장은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현재 벧집확보가 호남지역에서 이뤄지다보니 아무래도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푸른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한 벧집 확보사업이 실현될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아직 가동 초기단계인 TMR 사료공장과 농장업무를 병행하다보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하는 김두경 울산시 지부장. 그는 높은 사료가격을 겨냥, 각 지역마다 TMR 사료공장 설립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지역별 소 사육두수 등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게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전북 정읍시 | 최시영 대표\_ 시영농장

### “자가 TMR 설비 구축... 생산성 높이고 사료비 부담 덜어”



전북 정읍시 정우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시영농장의 최시영 대표. 현재 3,000여평의 농장에서 6백20여두의 한우 거세우와 번식우를 사육하고 있는 그는 오염 우려가 없는 친환경 한우사육에 진력하고 있다.

“자체 TMR 설비를 통해 하루 5톤 정도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최시영 대표는 “옥수수, 콩비지, 맥주박, 버섯배지 등은 외부 구매를 통해, 나머지 수단그라스, 라이그라스, 총채보리, 피, 벧집 등은 자체 생산을 통해 TMR사료 원료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약 30%의 사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 급여시 보다 우수한 등급 출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다만 “TMR사료를 잘못 운영할 경우 해당농가에서는 한우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질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뒷면에서 계속)



사료비 절감에 앞서 친환경적인 농장운영이 TMR사료 활용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돼야 함을 역설하는 최 대표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농가들이 직접 TMR 사료를 만들려다 보면 그 원료가 되는 부산물 가격이 덩달아 올라 결국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며 한우 농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우사육 외에 ‘태영 광에너지’, ‘바리비프’, ‘기산농원’ 등 친환경 관련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최낙삼 공동대표는 농장 주변 36만평의 밭에 원료곡을 직접 경작, 한우사육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100% 활용한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5월 대통령상 수상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전남 장흥 | 이만주 대표\_ 봉천농원

## “자체개발한 화식형태 TMR 제조기, 노동력 크게 절감”



“5월에 출하되는 한우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설비를 통해 부산물 사료를 급여한 만큼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서 한우 8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봉천농원의 이만주 대표. 그는 파옥수수, 과일 찌꺼기, 팽이버섯 배지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업 부산물을 볶짚과 섞어 TMR 사료를 직접 만들고 있다.

1년간의 개발기간을 통해 자체 개발한 ‘스팀사료 급이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그 핵심이다. ‘스팀사료 급이기’는 축산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퇴비살포기를 활용하여 이 대표가 직접 개조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스팀사료 급이기’를 보일러와 연결하고 위쪽에 장착된 찰뿔에서 TMR 사료를 찌낸 다음 하부에 부착된 컨베이어를 통해 축사 좌우로 한우에게 급여하는 방식이다. “장흥군수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농장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TMR 사료제조기를 개발하게 됐다”는 이만주 대표는 “예전에 가마솥에서 만들던 ‘쇠죽’을 끓이는 것과 같이 볶짚과 함께 부산물을 혼합하여 TMR 사료를 찌 낸다”고 밝힌다. 다소 보완 할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이상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인건비와 운반비를 포함, 약 40%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의 경우 하루 2회 가동만으로 전체 사육두수에 급여할 수 있습니다” 이만주 대표는 부산물과 볶짚을 수작업에 의해 섞어 준 다음 약 20분간 사료를 찌서 ‘화식’ 형태로 급여하고 있는데 한우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에 그저 행복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 지역은 겨울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 겨울철에도 TMR 사료용 부산물을 구하기가 수월한데 ‘화식’ 형태의 자가 TMR 사료를 급여하고 난 후로 겨울철 송아지들에게 흔한 호흡기 질병이 줄어 들어드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한다.

이제 부산물과 볶짚을 섞는 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는 이 대표는 다시 이 설비를 제작하게 될 경우 6~7백만원만 들이면 가능하다고 자랑 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경기 이천 | 김성진 대표\_ 새봄목장

## ‘두부비지’ 부산물 급여로 사료비 25% 낮춰



경기도 이천 새봄목장의 김성진대표는 두부비지를 조사료에 급여해 사료비를 25%정도 절감하고 있다. IMF당시 어떻게든 사료값을 좀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사료 대용으로 사용할 만한 부산물을 찾아 인근을 물색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두부공장 and 인연을 맺게 됐다.

김성진 대표는 “당시에는 어떻게든 사료비를 낮추지 않으면 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박했다”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료비를 절감하는 만큼 노동력은 더 들어간다. 매주 3차례씩 직접 공장에 가서 2톤씩 비지를 받아와야 하고, 농장에서 다시 비지를 배합해 급여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는 특히 6개월령부터 출하까지 이 사료를 급여하면서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위해 애쓴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부산물을 활용할 때는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등급간 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고급육 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어차피 규모가 일정한 상황에서 높은 생산성이란 고급육 생산에 달려 있다. 자가 TMR은 생산비 절감이 아닌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육전문 목장으로 12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새봄목장은 지난해 1톤이 넘는 슈퍼한우를 출하한 농장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 한우자조금 지난해 238억 조성 218억 집행 거출금액 2만원 유지 결정



▲ 3월 31일 흥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대의원회

2기 한우자조금의 거출금이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행대로 두당 2만원으로 결정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월 31일 충남 연기 소재 흥익대 국제연수원에서 2009년도 제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작년도 사업결산안을 승인하고 2기 거출금액을 결정했다.

08년 한우자조금 사업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자조금은 농가거출금 107억8660만1000원과 정부보조금

80억원, 기타수익금 4억6889만6000원, 이익이월금 45억8556만7000원 등 총 238억4106만4000원이 조성됐다.

이 가운데 소비홍보부문에 128억2954만2000원이 집행됐으며 교육·정보제공에 40억8549만9000원, 대의원 선거비에 3억7940만3000원, 조사연구에 2억271만1천원, 징수수수료에 4억8183만9000원, 운영비부문에 5억7950만4000원 등 218억 3600만원을 집행했다.

거출금액 결정안에서는 작년 한해 평균가격인 42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만1천원까지 거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나, 현행대로 2만원씩 거출하기로 한 지난 관리위원회 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감사보고에서는 대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한우농가의 대변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고, 자조금 납부지연 도축장에 대해 지역 대의원이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08년도 거출 우수도 포상을 통해 경북도가 1위, 경기도가 2위, 경남도가 3위를 차지해 대의원 총회에서 시상과 상금을 수여받았으며 우수농가 시상식에서는 대상에 한우사랑 송지현 대표(보은), 금상에 한민농장 고완석 대표(김제), 신용농장 정태운 대표(정읍)가 은상은 자영농장 이근범 대표(음성), 우전목장 이병환 대표(가평), 태영목장 강태영 대표(하동) 등 총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 소띠 해 맞아 '한우' 온라인 적극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대행사 선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09년도 한우 홍보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를 담당할 대행사를 선정했다.

3월 30일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비타마케팅'으로 앞으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www.hanwooboard.or.kr), 한우114(www.hanwoo114.co.kr)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우자조금은 생산자 및 소비자 정보제공 사이트 관리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생산자,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한우를 제대로 홍보하여 한우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



# 자조금 악성 미납 도축장에 정부 규제 필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강력한 조치에 필요성 공감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악성 미납 도축장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 흥인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우자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지난 2008년1월부터 2009년1월까지 미납된 자조금이 전국 24개 도축장에서 5억 1천여만원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속하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호식 위원은 “지역별로 미납도

축장이 산재해 있다면 현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도축장들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영 위원은 “자조금 사업 초기 농가들의 자조금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관리위원회의 몫이었다”고 전제, “하지만 현재 미납 추세는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받아 유용하고 있는 사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단속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미납도축장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전영한 위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조금을 유용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집단행동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농가들의 돈을 받고 마음대로 유용

하고 있는 만큼 지역 농가들이 나서 도축장을 고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도용 위원은 “지역 도축장을 항의방문해 본 결과 농가차원의 행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가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해야 거출률 100%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호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조금 출범 4년에 이르러 지금까지 상습 미납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상습미납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에서 특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결산과 함께 인사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한우자조금 거출금액 조정안 등도 논의됐으며, 대의원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국민공감대 형성할 한우 광고 찾는다 2009년 한우 TV · 라디오 광고 입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홍보하고자 2009년 한우 광고를 제작할 대행사를 입찰을 통해 공모한다.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2009년 한우광고를 통해 경기부진 속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민족유산으로서의 한우를 재조명함으로써 한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2005년 한우맛조 편, 김용택 편

▲ 2006년 좋은날 편

▲ 2007년 대장금 편

▲ 2008년 한우 암행어사 편



# TV 드라마 · 영화에서 한우 홍보한다 소비자 구매욕구 자극해 소비촉진



◀▲ 사진은 2007년 영화, 2008년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식객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일률적이고 정적인 광고보다는 TV드라마에 한우의 소비 장면을 자연스럽게 노출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TV 드라마 · 영화 PPL 협찬을 계획중이다.

전국한우협회는 TV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우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 한우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우선 4월 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한우를 참신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로 노출하여 한우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 기업체 대상 시식 · 홍보에서 직거래망 구축까지 「기업체 연계 소비행사」 사업착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는 기업체 연계 소비행사를 보다 활성화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자 대행사 선정에 나선다.

행사를 주관하는 전국한우협회는 올 해 기업체 연계 소비행사를 위해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여 한우에 대한 구매력을 가진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한우시식 및 할인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 대행사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협회는 올해에는 기업체 연계 소비행사를 통해 해당 기업 종사자들에게 한우를 바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향후 기업체가 속한 지역의 한우생산자와 직거래망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한우 판매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 지하철 옥외 한우광고 2개월 연장 주요 소비층 대상 한우 홍보에 적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 해 지하철 옥외광고 게재 기간을 연장한다.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광고(와이드 칼라, 스크린도어)를 통하여 주요 소비층인 직장인 및 강남권 고가 아파트 지역의 소비층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 현 지하철 옥외광고가 한우 홍보에 적절하다고 판단, 한우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 전파를 통해 한우소비를 유도하고자 예산 1억 5천만원을 추가해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2개월간 광고를 연장했다.

# “쇠고기 이력추적 및 원산지 식별 요령” 정기 교육 70여명 유통감시원 참여, 교육열기 높아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자조금으로 운영하는 한우 유통 투명화 감시원 교육을 실시했다.

3월 25일 축산물등급판정소 3층강당에서 1시부터 열린 교육에 총 89명의 유통감시원 중 70여명이 참석해 높은 참석율을 보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과 원산지 식별교육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제1강의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및 축산물 등급제도”로서 이원복 축산물등급판정소 본부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원복 본부장은 쇠고기 원산지 단속에 주로 참여하는 유통감시원들에게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고 축산물의 등급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2강의는 “쇠고기 원산지 식별요령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김익주 서울시청 식품안전팀장이 발표했다. 김익주 팀장은 원산지 별로 준비된 쇠고기(한우, 국내산 육우, 국내산 젓소, 미국산, 호주산,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통해 원산지 식별법을 자세히 설명해 교육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제3강의는 “유통감시활동 매뉴얼 및 감시활동 사례발표” 시간으로서 우영기 서울·인천·경기 유통감시단장이 매뉴얼 작성법과 감시활동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감있는 지식을 전달했다.

제3강의는 “유통감시활동 매뉴얼 및 감시활동 사례발표” 시간으로서 우영기 서울·인천·경기 유통감시단장이 매뉴얼 작성법과 감시활동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감있는 지식을 전달했다.

## 2009년 1차 16개 한우판매점인증점 인증서 수여 한우판매점인증제 정기교육 및 인증서 수여식



2009년 1차 한우판매점인증제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이 열렸다. 전국한우협회는 센트로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한우판매점인증제 정기교육 및 인증서 수여식’을 4월 7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신규 인증을

받은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인증점 유지관리 및 홍보지원, 홍보물 안내 등 한우판매점인증제에 대한 신규 인증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한우판매점인증사업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2009년 1차에 선정된 업소를 선포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 농협 여성 한우 아카데미



여성 한우인의 목장 경영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자 개최된 '여성 한우 아카데미'에 수도권·강원권 여성 한우인 66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농협 설악공제수련원에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으며 한우자조금 사업현황 설명, 한우 소화생리 특성 및 고급육사양, 개량, 교양강좌를 통해 여성 한우인의 호응을 받았다.

## 한우농가 HACCP 교육

한우농가 HACCP교육이 3월 18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개최됐다.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한우생산성향상 전문기술 농가교육



**홍성** 3월 5일 홍성지역 한우농가 70여명을 대상으로 번식우 사양관리, 송아지 질병, 미네랄 블록 효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예산** 3월 31일 예산군내 한우농가 150명을 대상으로 한우의 사양 및 질병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 진주 한우농가 6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 한우사육 시설 현장 견학을 통한 축산기술 접목, 경영비 절감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현장실습교육이 4월 9일 실시됐다.

## 제4편\_ 민속문화와 한우

# 소와 세시풍속

소는 전통사회에서 우리민족의 주요 생업활동이었던 농경을 비롯하여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온 소중한 가축이었다. 농경과 운송을 위한 노동력의 원천, 식량과 의류 및 수공업의 중요한 재료, 재산증식의 기제, 의례의 희생물 또는 약재로서 이용된 소는 우리민족의 농가경제, 물질문화, 의례생활 등에 매우 소중한 존재로서 단순한 가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 생구(生口)로 표현되는 소는 집안에 동거하는 사람과 같이 취급될 정도로 인간에 가장 친숙한 가축이었다. 따라서 소는 우리의 민속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 세시풍속에서 나타난 농경문화적 요인

세시풍속은 해마다 일정 시기에 반복되는 생활행위로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자연적 요인, 농사를 주업으로 의존해 온 농경문화적 요인 그리고 종교적 요인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소와 관련된 세시풍속은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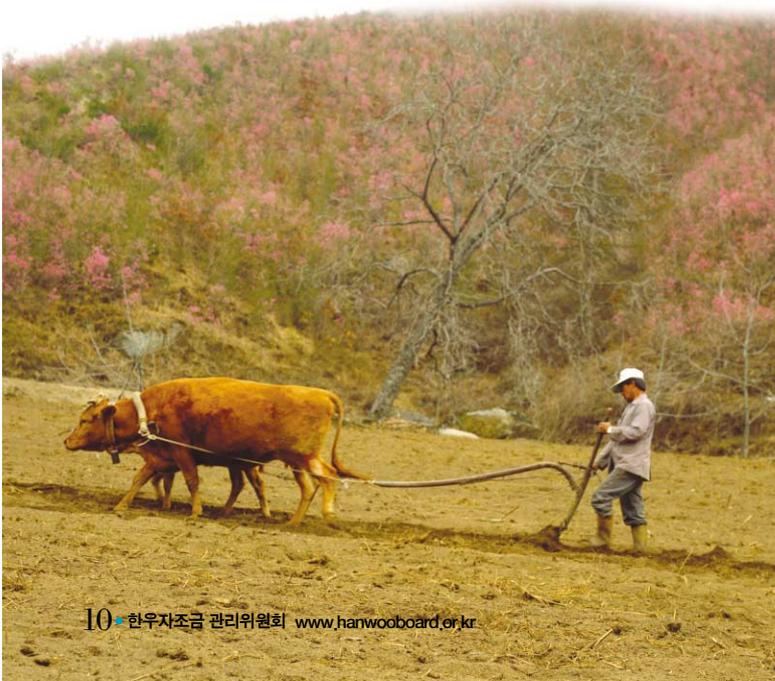
로 정월에 예조의 성격을 지니는 풍속과 연중 농경세시와 관련된 세시풍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와 관련한 세시풍속

정월에 소날 혹은 상축일, 소 만뫼국주기, 소밥주기, 송아지떼기 혹은 쇠기뜨기, 외양간에 업나무걸기, 목서리, 초감제, 문전제지내기 등 다수의 풍속이 있다. 한해의 새로운 시작인 정월에는 주로 예조, 기복, 제액을 기원하는 성격의 풍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월에는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영등맞이가 있다. 이때 소를 기르는 집에서 영등맞이와 함께 소기르는 집에 여자 출입하지 않기를 행한다. 이 역시 금기를 통한 제액과 기복의 성격을 지니는 행사에 해당한다.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어 농사일이 바쁜 시기인 삼월에는 정월에 장을 담지 못한 가정에서 유모일(有毛日)을 택하여 장을 담는다. 이때 말날, 닭날과 함께 소날을 길일로 간주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소를 끌고 밭일을 처음 시작하는 첫보냄과 한식날 그동안 쉬고 있던 소를 한 번 부러보고, 아직 한 번도 농사일을 하지 않았던 소는 길을 들이기 위한 소부리기 등의 풍속이 있다. 이밖에도 목동들이 소꼴을 베러 산에 갔다가 모여서 소꼴을 두고 내기를 하는 풀싸움이 있다.

여름철로 접어든 오월에는 단오날 소를 경품으로 걸고 씨름을 행한다. 이날을 송아지 코 뚫는 날이라 하여 소코뚫레를 하기도 한다. 소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라는 의미에서 산맥이를 하며, 소가 병이 나면 말린 썩으로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썩베기도 한다. 유월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은 유월보름날의 유두이다. 이날에는 소머리로 국을 끓여 먹는 풍속이 있었다. 유월





에는 만들이, 풋구, 농군 쉬는 날에 김매기 등으로 농사일에 지친 농군이나 머슴을 소에 태우고 주인집을 드나들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 칠월에 소와 관련된 풍속도 농사주기와 관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머슴날, 날알이 먹기, 두레먹기, 머슴 대접하기와 같이 농사일에 수고한 농군을 위로하는 풍속에서 소에 태우거나 소고기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쇠미꼬지, 백중굿, 백중고사, 우마명절을 통해서 농사일에 이용된 소의 건강을 기원하거나 소를 잘 먹이는 풍속이 있었다.

가을철에 접어든 팔월에는 소싸움, 소놀이, 꼴베기 등의 풍속이 있었다. 이때에는 농사일을 마치고 수확을 기다리면서 풍년을 기원하거나 액막이의 성격을 지닌 풍속이 많았다. 소싸움이나 소놀이와 같은 풍속은 풍년을 기원하고 액을 막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풍속으로서 농사일을 마치고 다소 한가한 여유를 엿볼 수 있다. 꼴베기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소에게 먹일 풀을 베는 것이다. 구월에는 주로 제주도지방에서 겨울에 소에게 먹일 소꼴베기와 마소의 엉덩이에 쇠를 달 구어 글자를 새기는 낙인찍기와 소귀에 칼밥을 넣거나 췌거나 도려내는 귀표를 하기도 하였다.

시월에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햇곡식과 햇과일로 각종 제사를 지내는 시기이다. 이때 소 한 마리를 잡거나 소머리를 제수로 올리는 곳이 많았다. 마소계라 하여 계원들이 기금을 모아 소를 잡아먹는 모임도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이때 방목하던 소를 집안으로 들



이는 소들임을 하였다. 수확한 햅쌀로 밥을 지어 집안 곳곳에 올리는데, 이때 외양간 등지에도 함께 밥을 올려 가내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다. 특별히 외양간 고사를 지내는 곳도 있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십이월에는 농사일에 힘들었던 소나 가축에게 많은 음식을 베푸는 풍속이 있었다. 만두먹이기도 이에 해당하는 풍속이다. 이듬해 정월에 지내는 명절과 동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를 공동으로 추렴하는 소추렴의 풍속도 있었다.

이밖에도 소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축으로서 연중 내내 소들보기와 액막이 등의 풍속도 행하였다. 구농장군 위하기, 소액막이, 외양간에 돌걸기(소돈걸기), 외양간에 복숭아가지 걸기 등의 의례는 소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풍속이었다.

〈표〉 소와 관련된 월별 세시풍속

월별	세시 풍속
정월	소날 혹은 상축일, 소 만뚝국주기, 소밥주기, 송아지떼기 혹은 쇠기뜨기, 외양간에 엄나무걸기, 목서리, 초감제, 문전제지내기
이월	영등맞이, 소 기르는 집에 여자 출입하지 않기
삼월	소날 장담그기, 첫보냄, 소부리기, 풀싸움
오월	씨름, 송아지 코 뚫는 날, 산맥이, 약쑥베어 병든 소 치료하기
유월	만들이, 풋구, 농군 쉬는 날
칠월	머슴날, 날알이 먹기, 쇠미꼬지, 백중굿, 백중고사
팔월	소싸움, 소놀이, 꼴베기
구월	소꼴베기, 낙인찍기, 귀표내기
시월	산제사, 마소계, 낙인찍기, 귀표고사, 소들임, 첫 밥 올리기, 외양간 고사
십이월	만두제사, 소에게 만두주기, 소추렴, 가축에게 음식 많이 주기, 그믐차례
연중	구농장군 위하기, 소액막이, 외양간에 돌걸기(소돈걸기), 외양간에 복숭아가지 걸기

##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 “한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사업본부장 이 원 복



“오늘 우리 판매장으로 납품할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가 있는 쇠고기로 가져다 주세요.” “이 쇠고기는 고유의 번호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산 한우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수입산을 드시겠습니까?”

니까?”

최근에 도매시장, 식육판매업소, 음식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풍경이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지난해 12월22일 사육단계의 송아지 출생신고 및 이동신고의 본격실시로 대망의 첫발을 내딛었고, 오는 6월22일 유통단계 의무실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나 쇠고기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사육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살 때 그 번호를 통해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최우선시 하는 제도로써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살 때 한우고기냐, 수입쇠고기냐, 젓소고기냐에 대한 의심과 고민을 한꺼번에 해소시켜 주는 유통의 혁신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추적을 개시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회수조치로 이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의 필수조건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현황 및 성과

우리나라의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유럽에 이은 미국과 일본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식품안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지난 2004년 10월 브랜드경영체의

우선적 참여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었다.

2009.4월 현재 전국 132개소의 위탁기관이 참여하여 280만두가 등록되고 유통단계도 도축장 8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82개소 그리고 판매업소 409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소는 출생을 하거나, 양도·양수 등의 이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오는 6월21일까지는 한우우 뿐만 아니라 젓소도 귀표부착과 전산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 한우농가가 필히 해 주셔야 할 사항

-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30일 이내에 꼭 해야 한다. 6.22부터는 전산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 및 거래가 금지
  - 출생신고를 하려는 농가는 소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지리적 여건상 서면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는 구술, 전화 등으로 신고
  - 현재 농가가 가지고 있는 소는 6.21까지는 위탁기관에 신고와 귀표부착을 마쳐야 한다.
- 출생신고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귀표부착
  - 귀표는 이력추적을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제작된 표로 인쇄형, 단추형, 재부착용 귀표가 있다.
  - 귀표부착은 위조 및 탈락방지를 위해 필히 양쪽 귀에 부착하며, 귀표부착은 전국 132개 위탁기관에서 대행해 준다.
  - 귀표탈락시에는 재부착용 귀표를 동일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재부착해야 한다.

- 기존 축산정책으로 농협에서 기 배부한 9자리의 구형귀표는 기존소에 기 부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 소를 사고 팔거나, 도축 또는 폐사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
  -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한 경우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귀표가 부착되지 않으면 소를 사고 팔거나, 수입·수출이 불가능하다.
  - 도축을 위해 출하한 경우는 도축장경영자가 도축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 출생 등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필히 변경 신고
  - 소의 신고내용에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고해야 한다.
  - 기록누락이나 오류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는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제출해야 한다.
- 6.22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 사육단계에서의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한우농가들의 출생 및 이동신고 등의 기본이 우선되어야 하며, 식육판매업소는 쇠고기 구입시 개체식별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 이력추적제 성공을 위해서는 모두가 준비해야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한 촛불 시위와 식품의 멜라닌 파동 등을 지켜보면서 식품의 안전은 이제 더 지나칠 수 없는 필수조건이 되었고, 그 속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우리 축산을 위해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제도라 할지라도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별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제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법이 마련되어 사육단계는 지난해 12월22일 이미 시행되었고, 오는 6월22일 유통단계의 전면적 시행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전면적으로 시행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단계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조금의 양보가 우리 축산업계와 육류유통업계에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희망을 갖고 정부, 지자체, 시행기관, 위탁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 모두가 하나가 되어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전면시행에 적극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제도가 성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다.

특히,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에서 한우농가들이 키우고 있는 소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는 동 제도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사전 조기 시행하는데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소에 귀표도 달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우고기를 수입쇠고기로 둔갑판매, 급식업체의 불법유통 등 유통단계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앞으로 한우농가의 자발적인 출생 및 이동 신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유통업체에게만 돌렸던 문제점이 부메랑이 되어 양축농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6.22 이전에 모든 소의 귀표 부착과 이동신고 등의 철저한 시행을 당부한다.



3.27~31 청도 소싸움 축제



청도 한우농가는 한우자조금 후원으로 청도 소싸움 축제 기간인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우불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 및 홍보를 진행했다.

4.10~12 양산 유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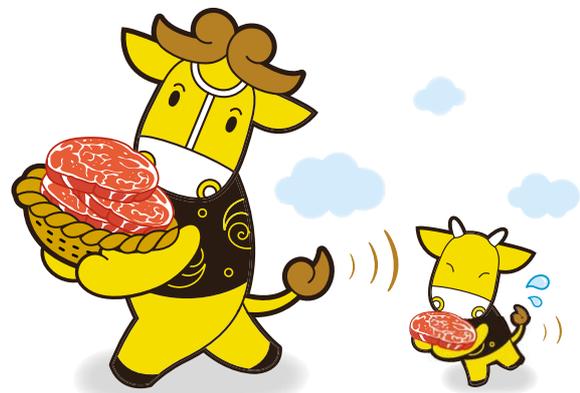


한우자조금은 양산 유채축제가 열리는 기간인 4월 10일~12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찾은 상춘객을 대상으로 한우불고기 시식회를 열어 한우를 홍보했으며 양산시 한우농가들이 참여해 한우홍보에 동참했다.

4.10~12 논산 딸기축제



한우자조금은 전국한우협회 논산시지부와 함께 논산딸기 축제 기간동안 딸기 축제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를 홍보하는 불고기 시식회를 열고,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했다.



## 한우 사육두수 232만두로 증가

'09년 3월 한우 사육두수는 232만 천마리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가축사육 동향을 통해 쇠고기 수입 감소, 산지가 격 하락세 진정추세,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우사육두수가 전분기보다 5만2천마리(2.3%) 증가, 전년동기보다는 23만8천마리(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우사육두수는 '9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후 최대 사육마리수를 기록했다. 사육가구수는 17만3천가구로 소규모

사육농가의 폐업 증가 및 규모화 추진으로 전분기보다 3천가구(1.7%) 감소, 전년동기보다 1만가구(5.5%) 감소해 가구당 한우 사육마리수는 13.4마리로 나타났다.

한우는 '80년중반 역축(役畜, 노동력 이용)목적 등으로 약 100만가구가 있었으나, 기계화 추진 및 이농현상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주로 축산물생산 목적으로 약 17만3천 가구로 줄어 들었다.



### 전국 한우像 순례 ②



울산광역시 두동면 봉계리의 "봉계 불고기단지"의 입구에 설치된 한우像이다. 2001년 10월 봉계 불고기단지를 조성한지 10주년을 기념하여 울주군청에서 제작, 기증한 작품이다. 여유롭게 앉아서 쉬고 있는 순한 모습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한우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한다.



### 한우자조금 애독자 코너

4월에는 '한우사랑'을 주제로 한우농가 여러분의 사행시를 받습니다. 한우에 얽힌 이야기, 한우사랑의 뜻을 담아 사행시를 지어주세요. 채택된 한우농가 6분께 송아지 설사방지 및 개선효과가 있는 '아이지드링크'를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 [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www.hanwooboard.or.kr](http://www.hanwooboard.or.kr)

#### ★ 3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 송아지설사예방약 임종일(전북 남원), 김달영(경북 예천), 이재도(경북 예천)
- 사골 임정수(전남 무안), 박길엽(전북 순창)

※ 3월은 상품공지가 되지 않아 송아지 설사예방약과 사골을 보내드렸습니다. 4월부터는 송아지 설사예방약만 발송됩니다. 한우농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우를 민족산업으로 뿌리내려 가겠습니다.”

- 한우는 우리 민족 정서에 배어있는 민족문화 유산입니다.
- 단순한 고기산업에서 한민족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국가·지방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로 뿌리 내리겠습니다.
-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소비자)들이 키워가는 산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한우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 2009년 한우자조금 사업방향

- 한우소비 기반 확대를 통한 소값 안정에 역점
- 시장개방 등 외부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통한 한우산업 보호
- 한우농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조금 역할 제고
- 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R&D사업 확충